

광주 교통사고 사망, 17년만에 최저

올해 상반기 사망자 19명... 지난해 같은기간 12명 감소
 사고 잦은 14곳 집중 관리...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 시행

광주지역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하며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1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명보다 12명 줄었다. 2005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광주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117명, 2018년 75명, 2019년 4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이륜차와 렌터카 등 사망사고의 발생으로 전년보다 26.5% 증가한 바 있다. 특히 이중 보행자 사망사고는 33%에 달했다.

시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자 보행자를 지키기 위해 교통문화 혁신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왔다.

또 캠페인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행자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입니다'는

단일 대표구호를 선정하고, 각급 기관과 다양한 매체들이 참여하는 범시민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3월에는 '광주시 보행안전 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대 추진전략과 9대 맞춤형과제를 선정해 보행자 교통사고 줄이기에 노력을 집중해왔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14곳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야간 교통사고 발생구간 횡단보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자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시행하고 있다. 4월 17일부터는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하는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 자치구, 경찰청, 교통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인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팀을 2018년부터 매월 운영하며 월별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이륜차,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대책,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 교통대책, 불법 주정차 해소 방안 등 실정에 맞는 맞춤형 안전 대책도 운영하고 있다.

매월 교통안전 유관기관이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는 건 전국에서 광주가 유일하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계기로 광주시와 광주경찰청 간 교통안전 분야 업무협력이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사고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도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간소화했다.

박남연 시 교통건설국장은 18일 "앞으로도 월별 교통사고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교통사고가 꾸준히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취재본부

수습·경력기자 모집

“지역언론의 선봉장인 호남신문에서 재능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모집부문·인원 : 수습·경력기자 0명
- ▶ 지원기간 : 채용시까지
- ▶ 지원자격 : 학력·나이제한 없음
-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2차 면접
-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 부착)·자기소개서 각 1부
- ▶ 접수방법 : 등기 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 (ihonam@naver.com)
- ▶ 접수처 :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아일랜드 309호 (문의전화 : 062-229-6000)



16일 오후 광주 남구 양림동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핫플' 광주 양림동 거리도 코로나19에 '텀텀'

활기 잃은 거리에 1년간 상가 공실
 관광지·관광 프로그램 운영 차질도

“나간다는 상가만 있고 임점 상인은 없어요. 코로나19 이후 상가가 1년간 공실이에요.”

지난 2015년 이후 구 도심에 '이색 거리' 조성과 카페·식당이 들어서면서 광주 남구 핫플 레이스로 부상한 양림동이 코로나19 확산 기점으로 방문객이 줄어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광주 남구 양림동 카페 거리·펭귄마을 일대.

이색 거리 '펭귄마을'은 지난 2013년 양림동 어르신 4~5명이 고철 작품으로 노후 주택 골목길을 꾸며 탄생했다. 이후 2015년부터 방문객 발길이 본격적으로 늘었다. 그러나 광주 지역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2월부터 '펭귄마을' 골목길엔 녹이 순 고철 작품만 자리를 채웠다. 방문객이 이따금씩 찾았지만, "사람이 없네"라며 입구만 둘러 보고 발길을 돌렸다. 양림동 공연·체험 프로그램도 중단됐다.

문화 공간 '1930 양림살롱'은 지난 2016~2019년까지 연간 3000~1만5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양림동 문화 유적지 투어가 중단됐고, 올해 진행 여부도 불투명하다.

펭귄마을 인근, 방문객으로 북적이던 양림동 상점가도 썰렁했다.

카페·식당·옷가게 자리였던 상점 곳곳엔 '임대문의', '영업중단'이 적힌 안내문이 걸렸다.

한 카페는 문을 열었지만, 손님이 없어 직원 2명만 자리를 지켰다. 자물쇠가 채워진 한 술집 입구엔 빛 바랜 남부 고지서 몇 장이 꽂혀 있었다.

모 양림동 부동산중개업자 김모(44)씨는 "코로나19 이후 폐업 상가가 크게 늘었다. 1년 간 임점 문의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림동 상인들은 임대료 인하와 메뉴 개발·상점 공유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림동 청년소상공회(양림트레네상스) 김선미 대표는 "양림동 상가가 몇 년 새 월세가 15~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올랐다. 동네 가능성을 보고 들어온 상인들이 비싼 월세와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림동 만의 근·현대사를 이용한 특색 있는 메뉴와 관광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 방문객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상점 소개 플랫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연 교수는 "임대료 인하는 자본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원금도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며 "지자체가 상가 건물을 사서 공공재로 활용하거나, 지역의 특성을 유지하되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로 시민 발길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취재본부

오늘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 4명까지만 가능

다음달 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역 상황 따라 지자체 결정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역에도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토록 하고 직계가족 모임과 상견례, 돌잔치, 예방접종 완료자 미포함 등 예외 사항도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보고 받은 '비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 조정방안'에 따르면 19일 0시부터 8월 1일 자정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4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는 건 3단계 수준이지만 사적 모임 제한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하고 예외 사항을 지자체별로 상황

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3단계였다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는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제한 인원 미포함과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없음, 상견례 8명·돌잔치 최대 16명 허용 등도 지자체에 따라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여기에 3단계에서도 예외로 인정되는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 등 또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4차 유행으로 인한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거리 두기 단계가 낮은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비수도권 유행 확산이 우려되자 이를 고려한 결정이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청정전남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원년의 해' 선포

생명영양
 으뜸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탄소없는 건강한 미래,
 청정전남

청정
에너지

청정
산림

청정
산업

청정
생활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순천시 백강로 38(연향동) / T. 061) 286-7821~4